

온라인 식재료 판매업체인 '컬리'(Kurly)의 보상형 미니 게임 '마이컬리팜' 플레이 화면.

# 가상정원서 키운 작물 실제 내손에

이커머스 기업 '보상형 미니 게임' ...오늘의집 '식물' 컬리 '농작물' 등 목표 수확량 달성 시 쿠폰 지급 상품으로 교환 ...소비자 만족도 높아

"게임하고 농작물 받아주세요."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들이 '보상형 미니 게임'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앱에서 게임을 하면 식재료, 반려식물, 기프티콘 등 플랫폼 특성에 맞는 보상을 주면서 고객이 앱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려는 마케팅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터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은 최근 꽃과 식물을 키우는 미니게임 '오늘의 가든'을 출시했다. 꽃과 몬스터라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가상정원에서 키우면 실제로 식물을 받아볼 수 있다. 컬리는 지난달 1일 가상 테라스에서 자신만의 텃밭을 가꾸는 '마이컬리팜'을 선보였다. 이용자들은 방울토마토·양파·아보카도·오이 등 총 4가지 작물을 키워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목표 수확량을 달성하면 컬리에서 판매중인 작물을 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주어진다. 해당 작물을 구매해도 되고 다른 상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직접 마이컬리팜을 체험해봤다. 컬리 앱에 접속

하면 메인 화면에 컬리팜 아이콘이 바로 눈에 띈다. 카카오톡 컬리 계정으로 로그인 후 원하는 작물을 고르고 꾸준히 물주기 버튼만 누르면 끝이다. 직접 해보니 양파 하나를 수확하는데 약 10분이 걸렸다. 보상형 미니 게임들의 공통점은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별도로 앱을 깔 필요 없이 기존 앱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시간 날 때 버튼 몇번만 누르면 미션을 완수할 수 있다. 작은 투자로도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역시 높다고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실제로 전업주부 유모(여·36)씨는 "간단한데 어려모로 살림에 도움이 된다"며 "컬리뿐만 아니라 보상을 주는 앱이 많아서 부업처럼 틈틈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퇴직한 이모(61)씨는 "내가 심심해할까 봐 딸이 추천해줘서 시작했는데 쓸쓸한 재미가 있다. 앱으로 키운 채소를 직접 받아볼 수 있어서 틈만

나면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보상형 미니게임을 도입하는 이유는 떨어진 앱 체류 시간을 회복하고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매출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 성장세가 둔화되자 고객이 서비스에 머무르며 만족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앱테크(앱으로 하는 재테크)형 미니게임을 택했다는 것. 특히 고객이 게임을 하면서 보상을 얻기 위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둘러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매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보상형 미니게임 열풍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금융 슈퍼앱 토스는 현재 '고양이 키우기'란 이름의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고양이에게 물과 사료를 주고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면 햄버거·커피·아이스크림 등 원하는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순히 농작물 보상을 넘어 플랫폼에 따라 성격에 맞는 형태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앱테크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쏟아 IT 정보

### 대표창구 구매 기차표 모바일로

한국철도공사가 10월말 기차역 대표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을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기존 종이 승차권의 분실 위험과 승차권 반환 시 직접 대표 창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차역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면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웹 승차권 발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웹 승차권 발송 서비스'는 종이 승차권 대신 휴대전화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승차권을 받는 시스템이다. 전국 주요 역에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오프라인 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때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단, 현금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당분간 대표 창구에서 취소해야 한다. 코레일은 "12월부터는 현금으로 구매한 승차권도 휴대전화에서 계좌정보만 입력하면 모바일로 반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카카오페이, 17일 서비스 중단

카카오페이가 오는 17일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인 방화벽의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11일 이같이 공지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에 6시간 동안 결제, 송금, 자산관리, 대출 등 카카오페이 전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페이머니카드·인증번호 방식 모두 포함)·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증권·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KP보험 서비스 이용도 모두 일시 중단된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번 방화벽 교체를 통해 네트워크 대역폭이 개선되면 더욱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니시무라 혜성 소멸하나

일본 아마추어 천문가가 발견 18일 태양 3300만km까지 접근 태양에 접근하고 있는 니시무라 혜성(C/2023 P1)이 소멸할지 생존할지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18일 태양에 0.22AU(3300만km)까지 접근하는 니시무라 혜성은 태양 중력때문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무사히 태양근처를 통과한다면 일몰후 서쪽 하늘 지평선 근처에서 혜성의 모습을 쌍안경 등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주기는 432년으로 추정된다. 니시무라 혜성은 지난 8월 13일 오전 3시 43분 일본 아마추어 천문가 니시무라 히데오(西村 徳雄·74)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다카하시 EM200적도와 200mm 망원렌즈(F3)를 장착한 2대의 캐논 6D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북동쪽 쌍둥이자리 부근에서 10등급 밝기의 새 혜성을 찾는 개가를 올렸다. 나카무라·니시무라·맥홀츠 혜성(C/1994 N1)과 니시무라 혜성(C/2021 O1)에 이어 세번째로 발견한 신혜성이다. 16살때부터 신천체 탐색에 몰두해 혜성 3개를 비롯해 신성(新星) 31개를 발견한 '신천체 수색자'이다. /송기동 기자 song@

### AI와 예술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융합콘서트'

국립광주과학관, 16일 AI 작곡 음악 연주·전남대 김경수 교수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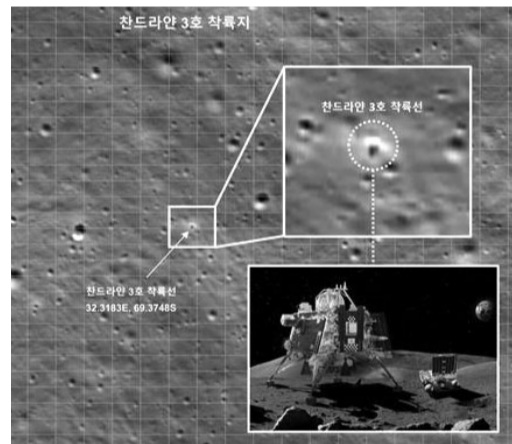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이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과학관 상상홀에서 '제4회 인공지능 융합콘서트'(이하 콘서트)를 연다. '인공지능 융합콘서트'는 인공지능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오딧세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강연과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문화예술 융합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행사 1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 작곡가 이보(이보M)가 작곡한 곡과 사람이 작곡한 곡을 들어보며 어떤 곡이 인공지능 음악인지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광주첼로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도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김경수 교수가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단에 오른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이 바꾼 미래문화와 창의적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챗GPT 등 인공지능

능의 영역이 날로 넓어가는 가운데 이번 인공지능 융합콘서트를 통해 미래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상상하고 창의적 발상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12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문의는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이나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화산실(☎062-960-6123)로 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다누리, 인류 최초 달 남극 착륙 현장 포착

인도 '찬드라얀 3호' 착륙지 촬영...12월 다누리 성과 공개

한국형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지난달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인도의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의 착륙지 촬영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다누리가 지난달 27일 '찬드라얀 3호'의 착륙지를 촬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찬드라얀 3호는 지난달 23일 달 남극점에서 약 600km 떨어진 지점에 착륙했다. 미국, 옛소련,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 달 착륙이다. 다누리는 2025년 12월까지 달 임무궤도를 돌며 달 착륙 후보지를 촬영하고 달 표면 원소·광물 지도 제작을 위해 달 표면 편광·감마선을 관측한다. 또 달의 기원 연구를 위한 달 자기장을 측정하고 우주인터넷기술 검증 등 다양한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다누리 임무 수행 1주년을 맞아 달 착륙 후보지 사진, 5종의 달 원소지도, 달 방사선환경지도 등 다양한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가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인도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 착륙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SKT, 'AI 요금 안내서' 제공

SK텔레콤이 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AI 상담사가 이용 요금을 따로 안내하는 '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서'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말로 하는 요금 안내서는 AI 상담사가 고객에게 전화해 매일 납부해야 하는 총 요금과 통신요금·휴대전화 할부금·부가서비스 요금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통화료는 무료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에 자사의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다양한 음성 합성을 지원하는 AI 콜 플랫폼인 '누구 비즈콜 솔루션'을 활용했다. 총서명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부사장)은 "AI 기술을 다양한 방면에 활용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ESG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힘으로

##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